
모더니즘론의 탈식민주의적 전환과 그 가능성

—최근 한국 현대문학 연구에 있어 모더니즘의 역사화 경향과 식민지 모더니즘*

최현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부교수)

〈목 차〉

- I. 머리말
- II.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신모더니즘론
- III. 모더니즘과 식민지성(coloniality)
- IV. 모더니즘의 탈식민성
- V. 식민지 모더니즘의 양극(兩極)과 초극(超克)
- VI.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2015년을 전후하여 한국 현대문학 연구 분야에 나타난 모더니즘론의 역사화 경향을 셋으로 정리하고 이 중 모더니즘 자체의 식민성을 탈식민주의적으로 읽어내는 경향을 집중적으로 고찰한다. 이 경향은 한국적 맥락에서 모더니즘이 세계성, 보편성, 서양중심성과 친연성이 높은 개념이었다는 점에 주목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모더니즘의 식민지성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가 모더니즘의 탈식민적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로 이어지는 통로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모더니즘 문학을 탈식민주의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 이상, 최재서, 임화에 대한 식민지 모더니즘적 해석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모더니즘, 역사화, 식민지성, 탈식민주의, 식민지 모더니즘

* 이 연구는 2023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1. 머리말

2015년을 전후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문학 연구 분야에서 모더니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표준적 한국 문학사에서 모더니즘은 리얼리즘의 대립항으로서 문학의 이념적·현실참여적 경향에 반대되는 예술적·순수문학적 경향과 연동되어 있다.¹⁾ 이러한 구도에서 탈피하여 새롭게 추구되는 모더니즘 이해는 크게 다음의 세 경향으로 정리해볼 수 있을 듯하다. 첫째 리얼리즘 대(對) 모더니즘의 대립을 문학사적 실체에 대한 객관적 기술의 산물이 아니라 문학사 기술 행위의 수행성에 의한 생성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둘째 모더니즘 문학이 당시의 사회정치적 상황과 물질적·제도적 차원에서 직접 연동되어 있음을 보임으로써 모더니즘의 본질적 탈현실성이라는 통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한국적 맥락에서 모더니즘이 세계성, 보편성, 서양중심성과 친연성이 높은 개념이었다는 점에 주목함으로써 모더니즘 자체의 식민성을 탈식민주의적으로 읽어내는 경향이 있다.²⁾

한국 현대문학계에서의 이러한 모더니즘론의 새로운 분기 현상은 모더니즘론 내의 발전에 의해서만 추동된 것은 아니다. 첫째 경향은 문학 자체의 근대적 형성 과정에 대한 계보학적 논의와 연동되어 있고, 둘째 것

- 1) 김예리, 「식민지 모더니즘을 역사화하라!」, 『상허학보』 69, 상허학회, 2023, 649쪽. 여기서 김예리는 한국 문학사 서술에서 모더니즘 개념이 현재의 상식적 의미를 띠게 되는 과정을 차혜영, 「한국문학의 근대성과 모더니즘에 관한 연구사 다시 읽기」, 『민족문학사 연구』 16, 민족문학사학회, 2000과 박상준,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과 이상, 최재서』, 소명, 2018의 2장을 통해 간명하게 서술한 바 있다.
- 2) 이는 영미 비평계에서 전개된 ‘글로벌 모더니즘’론과 연동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010년대 영어권 문학비평계의 모더니즘론에서 ‘글로벌’한 층위가 부상하게 된 데는 탈식민주의와 트랜스내셔널리즘이 문학비평의 주요한 사상 자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전까지 전개되었던 모더니즘론의 서양·중심 편향성이 비판되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모더니즘 입장에서 보면 서양 모더니즘 문학예술의 이외 지역에 대한 일방적 전파가 아니라 제국·중심과 식민지·주변부 사이에 일어난 쌍방향 교섭이 중요하게 부상하며, 모더니즘은 그러한 복합적·다층적 교섭 과정의 복잡성과 내적 모순이 징후적으로 나타나는 창에 불과하게 된다. 글로벌 모더니즘론에서의 모더니즘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의 비판적 다시 읽기의 의의에 대해서는 한솔지, 「모더니즘과 세계: ‘글로벌 모더니즘’의 국외 연구 동향」, 『안과 밖: 영미문학연구』 51, 영미문학연구회, 2021 참조.

은 문학의 제도적 기반에 대한 유물론적 혹은 물질주의적 관점에서의 반성 경향과, 셋째 것은 세계화 시대 이후 근본적으로 변동된 글로벌/로컬 범주에 대한 전복적 재설정 욕망과 연동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모더니즘론의 변동은 총체적으로 볼 때 모더니즘의 “역사화”라는 과업의 이행 과정에서 파생했다고 할 만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더니즘의 역사화는 한국 현대문학 연구에서 나아가 일반적 모더니즘론의 맥락에서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 의의가 있다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연구의 방향은 어디서 찾아질 수 있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한국 현대문학에서 가능한 모더니즘의 역사화의 주요한 사례로 모더니즘의 식민성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읽기를 들고 이를 통한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격적 논의에 앞서 최근 한국 현대문학계의 모더니즘의 역사화 경향을 간단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경향은 모더니즘의 문학사 내에서의 정립 과정에 대한 고찰이다. 이 경향에 드는 연구에서 모더니즘은 과거 일정 기간 존재한 일군의 문학 작품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구성 과정의 수행성 자체로 나타난다.³⁾ 김예리는 한국현대문학이라는 학제가 미국 발(發) 신비평(New Criticism) 이론을 수용하며 국문학 내에서 정립되는 과정을 기술하면서, 이 과정에서 현재 문학사에 등재되어 있는 모더니즘 작품들, 특히 이상(李箱) 텍스트가 정전화(正典化)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⁴⁾ 김예리는 영미 문학 비평계에서 신비평의 대세화와 더불어 20세기 초 모더니즘 작품들과 모더니스트들의 활동의 ‘현대성’에 대한 시각이 영문학의 학계·교육계에서의 정위가 이뤄졌다는 점에 착목하는 데서 논의를 시작한다. 신비평은 한국 1950년대의, 격렬한 문학사적 단절

3) 표준적 한국 문학사에서 모더니즘이 주요한 흐름으로 부각되는 시대는 1930년대이다. 권은은 1930년대 당시에는 ‘모더니즘’이라는 용어 자체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현재 모더니즘 문학으로 칭해지는 작가나 텍스트에 대한 명명은 ‘회고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권은, 「한국 모더니즘 문학과 채만식 소설」, 『어문연구』 47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9, 275쪽.

4) 김예리, 「아카데미즘과 모더니즘: 국문학으로서의 현대문학과 모더니즘 문학/이론」, 『구보학보』 28, 구보학회, 2021.

의식을 표방한 전후(戰後) 문학 세대에게 자기들이 추구하는 문학을 ‘현대적’ 문학으로 정립하는 데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했으며, 이때 과거 문학사에서 ‘현대성’을 띤 탁월한 사례로 이상 텍스트가 선택되었다는 것이다. 김예리에 따르면 이 구도에서 ‘모더니즘’은 이상 문학을 비롯한 텍스트들을 한국 현대문학 최상의 정전으로 정립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이때 모더니즘은 과거에 존재한 일군의 텍스트들의 특질에 붙은 이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자기를 칭하는 자들이 문학사 혹은 ‘제도로서의 문학’ 내에서 자기를 정위하는 수행성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다.

이 논의는 정태적 대상으로서 모더니즘과 더불어 모더니즘이라는 명명 자체의 현재적 행위성에도 주목하는 입장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모더니즘 문학이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끝나버린, 현재의 관점에서 그 범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고정적 대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문학 전체를 현재의 어떤 임의의 관점에서든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이론적 입장에 관계된 개념임을 일깨워준다. 이런 관점에서 동아시아에서 모더니즘과 그 유사 개념들에 대한 계보학적인 고찰을 시도한 김미지의 논의도 살펴볼 만하다. 김미지는 동아시아에서 20세기 전반기에 나타난, 한국 문학사적 관점에서는 모두 ‘모더니즘’으로 통칭될 수 있을 법한 문학적 현상에 대한 명명이 한중일 삼국에서 각각 모더니즘, 신감각파, 현대주의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져 왔음을 고찰한다.⁵⁾ 이 연구는 나아가 위 삼항이 서로 간섭하고 길항하는 양상까지 분석함으로써, 문학적 모더니즘이 결코 그 경계선이 뚜렷하게 확정될 수 없는, 그것이 구사되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유동하는 개념임을 상기시킨다. 동시에 동아시아의 모더니즘 개념의 유동에 모더니즘의 원산지로서의 서양과 수입지로서의 동양의 관계, 서양 모더니티의 동아시아적 전파의 중개자인 제국주의 일본과 식민지로서의 한중(韓中) 사이의 관계가 개입되어 있음을 보인다.

5) 김미지, 「모더니즘, 신감각파, 현대주의: 동아시아의 ‘modernism’ 문학 개념에 대한 일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47, 한국현대문학회, 2015.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20세기 전반기 동안의, 현재적 관점에서 ‘모더니즘적’이라고 칭해지는 현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 문학 이론적 차원에서 그 자질이 연역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모더니즘 문학’의 자질들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작업이 요청될 수밖에 없어진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20세기 전반기의 모더니즘이란 그것을 모더니즘으로 특정하여 기술하는 시점의 ‘문학적 현대성’을 기준으로 규정된 것일 뿐이라면, 당시의 맥락에서 혹은 완전히 다른 제3의 맥락에서는 ‘현대적’일 수 있는 요소들이 억압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문학적 현대성’에서는 벗어나는 것으로 상정되나 다른 맥락에서는 현대적이라 생각되는 요소들이 어떻게 모더니즘 문학들에 개입되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요청되는 것이다.⁶⁾ 이러한 맥락에서, 위에서 지적한 최근 모더니즘 역사화의 두 번째 경향, 모더니즘 문학의 사회정치적 층위에 초점을 맞추어 물질적·제도적 차원에서의 현대성을 고찰하는 경향이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번째 경향에는 크게 보아 모더니즘 문학의 현대적 인쇄문화(print culture) 내에서의 구체적 존재 양상에 대한 분석이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인쇄문화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경제의 주요한 한 부면이라는

6) 한국 문학사에서 모더니즘 문학에 통상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작가로 취급되는 채만식의 소설에 대한 모더니즘적 읽기를 시도하면서 권은은, 채만식이 실제로 작품을 창작하던 1930년대 당시에는 ‘모더니즘’보다는 ‘세태소설’과 ‘심리소설’이라는 개념이 더 범용성이 있었으며 채만식의 경우 ‘세태소설’에 속한 작가로 취급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세태소설’ 범주에는 채만식과 더불어 현재 대표적 모더니스트로 간주되곤 하는 박태원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세태소설’은 당시 문학의 ‘현대성’을 구현하는 사례로 상정되었다는 점에서, 현재의 모더니즘 개념에 내포된 ‘현대성’을 역사화하여 인식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권은, 앞의 글 참조).

또 김예리의 경우 ‘토속적’ 소재를 ‘모더니즘적으로’ 표현했다고 통상적으로 평가받는 1930년대의 시인 백석의 작품을 ‘트랜스모더니즘’의 개념으로 포착한 바 있다. (김예리, 「트랜스모더니즘으로서의 백석 문학」, 『어문연구』 50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2.) 여기서 트랜스모더니즘은 현대성이 ‘한국적 토속성’과 대립하는, ‘한국’이 자기를 극복하고 성취해야 하는 ‘서양적인 것’으로서의 모더니티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한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의 교섭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포착하기 위해서 고안된 용어이다. 이런 점에서 김예리의 트랜스모더니즘 개념은 모더니즘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비판적 다시 읽기와 상통하는 지점이 있다.

점에서 모더니즘 문학의 물질적 존재 양상에 대한 유물론적 분석 역시 이 경향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김미지의 최근 연구 중 하나로, 모더니즘 문학의 탁월하고도 보편적인 사례로 꼽히는 작가 제임스 조이스와 그의 대표작 『율리시즈』가 어떠한 ‘매체 네트워크’를 통해 한중일(韓中日)에서 문학적 현대성의 전형적 사례로 정전화되었는지 살피는 연구가 있다.⁷⁾ 이 연구는 조이스 텍스트가 그 자체로 모더니즘 문학의 어떤 구체적 특질이 있기 때문에 모더니즘을 대표하게 되었다기보다 문학적 현대성을 정립하는 담론이 유통되고 확산되는 인쇄문화라는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순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관점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한다면 모더니즘은 그 모더니즘적 자질을 인정받은 결과 모더니즘이라는 적절한 명명을 받은 게 아니라, 현대적으로 유통되었기에 모더니즘으로 생성된 것이다. 이는 김미지의 논의에서 직접적으로 주장되는 바는 아니지만, 조이스 텍스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담론의 유통에서 모더니즘의 본질을 찾는, 이 연구의 기본전제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바이다. 텍스트 자체에서 텍스트를 유통시키는 매체, 매체가 유통되는 인쇄문화 네트워크라는 차원에서 모더니즘에 접근함으로써, 모더니즘의 구체적 사회 정치적 맥락에 대한 자율성이 의문에 부쳐지고 모더니즘의 역사화가 수행된다.

이런 경향의 또 다른 사례로는 한국 모더니즘 문학이 전개된 매체들 사이에 존재한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김진희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진희는 한국 문학사에서 모더니즘 작품들이 다수 발표된 동인지이자 작은 잡지(little magazines)⁸⁾인 『시와 소설』, 『삼사문학』, 『단층』, 『맥』에 기고

7) 김미지, 「한중일의 ‘제임스 조이스’ 담론과 매체 네트워크」, 『구보학보』 28, 구보학회, 2021.

8) 한국 문학사에서 김진희 연구에서 언급된 잡지들은 주로 ‘동인지’로 칭해진다. 모더니즘 문학의 현대적 인쇄문화 내에서의 유통 과정에 주목하면서 그 과정이 모더니즘 문학 자체, 모더니즘 문학에 대한 역사적 평가나 비평에 직접적으로 개입되었다는 식의 논의가 영미 비평계에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이 경향의 신모더니즘론에서 가장 주목되는 매체가, 혁신적 문학 개념을 지닌 소수의 저자들이 독립적으로 출판하는 매체로서의 ‘작은 잡지’이며, 한국 문학사에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김진희가 언급하는 동인지들을 들 수 있을 듯하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작은 잡

하고 출판과 경영에 참여한 저자들 사이에 존재했던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의 실상을 추적한 바 있다.⁹⁾ 이 일련의 연구의 기본 전제는 문학적 모더니즘이 그 경향에 드는 작품의 내적 특질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성을 추구했던 저자들 사이의, 동인지라는 인쇄물을 축으로 한 인간적·문학적 소통 과정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인쇄문화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라는 물질 기반으로부터 모더니즘을 고찰하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모더니즘을 사회정치적 현실로부터 자율적이고 자족적인 전체로 보는 상식화된 모더니즘론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동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결국 문학사적으로 상식화된 모더니즘 문학의 자질들에 대한 지식, 사실은 모더니즘 문학 작품들에 실제로 개입되어 있는, ‘모더니즘’으로 환원되지 않는 요소와 힘들을 사상시키고서만 정립될 수 있음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힘들 중 중요한 것으로, 서양 중심주의적 입장에서 정론화된 세계성·보편성이 현대 세계체제의 주변부이자 식민지 중 하나인 한국의 자기 정위 과정에 개입할 때 작용하는 힘을 들 수 있다. 모더니즘은 아직 현대적이지 못한 식민지 한국이 식민지성과 뒤쳐짐(belatedness)의 뒤엎힘을 일거에 극복하고, 현대성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로서 작용했다. 쉽게 말해 식민지 한국에 진정으로 모더니즘적인 문학이 있다면 한국의 식민지성은 한국의 본질이 아니라 부차적·일시적 특질 중 하나가 되고 모더니즘을 정점으로 하는 한국 현대문학사는 현재의 한국을 세계의 어엿한 한 멤버로서 인정하도록 만드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모더니즘적으로 이해된 한국 현대문학이 모더니즘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진 한국 모더니즘 문학이 한국의 현대성을 보증해주는 구도가, 여기 전제되어 있다.

지에 대한 논의에서 선편을 쥔 논의로 Mark Morrison, *The Public Face of Modernism: Little Magazines, Audiences, and Reception 1905-1920*,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2001을 들 수 있다.

- 9) 김진희, 「1930년대 모더니즘 네트워크와 거점으로서의 동인지: 모더니즘 동인지 『시와 소설』 『삼사문학』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28, 구보학회, 2021; 김진희, 「1930년대 후반 모더니즘의 확장과 남북한 시문학사의 재고: 동인지 『단충』(1937)과 『맥』(1938)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76, 한국문학연구학회, 2022.

그러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이때 모더니즘은 한국에는 본질적으로 귀속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세계적 보편성에서 유리된 한국의 주변부적 상태를 자연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 착목하여 모더니즘 자체의 식민지성을 비판적으로 폭로하고 모더니즘을 통한 탈식민주의적 연구의 실천을 도모하는, 모더니즘의 역사화 경향의 세 번째 흐름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한국 현대문학 연구에서 모더니즘의 역사화 경향에 대한 위와 같은 정리를 바탕으로 하여, 이후 논의에서는 모더니즘의 식민성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폭로 경향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 논의는 우선 모더니즘의 역사화를 추동시킨 이론적 기반으로서의 신모더니즘론(New Modernist Studies)에 대한 검토에서 시작한다. 이후 최근 한국 현대문학계에 제출된, 모더니즘의 식민성에 집중한 연구로서 최현희의 『도둑맞은 이름들: 한국 근대문학과 식민지 모더니즘』(2023)에 나타난 ‘식민지 모더니즘’ 개념을 살펴본다. 이 가운데서 모더니즘의 식민지성에 대한 비판이 모더니즘의 탈식민적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로 이어지는 통로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모더니즘 문학론을 탈식민주의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 이상, 최재서, 임화에 대한 식민지 모더니즘적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글은 궁극적으로 한국 현대문학 연구에서 모더니즘의 역사화 경향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신모더니즘론

모더니즘은 문면대로 풀면 ‘모던’을 추구하는 경향이라 할 것이다. ‘모던하다’를 정의하면 그 경향이 무엇인지 드러날 듯하나 사태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모던’을 ‘현대적’이라 옮기고 현대를 현재의 시대라 보면, 현재의 본질적 상대성 때문에 모더니즘은 근본적으로 정의 불가능한 개념이

되고 만다. 즉 그 가장 간단한 해명에서조차 모더니즘은 이미 그 근본적 비결정성이 도출되는 것이다. 이 점을 한국 근대문학사에 비추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모더니즘 문학이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역사상의 시간대는 20세기 전반기이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현재는 당대, 즉 20세기 전반기이며 그 현재성에 충실하려는 입장이 모더니즘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들의 모더니즘을 21세기 현재 “모더니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시대착오(anachronism)의 행위자가 된다. 우리에게 현재는 21세기이고 20세기 전반기는 과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더니즘”이라고 말하는 순간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2024년이 연동된다. 이처럼 모더니즘이라는 기호는 그 기의가 기표를 매개로 언표행위자의 주체성과 뒤엎기는 차원을 전제하는 개념이며, 그 복잡성은 그 본질적 시대착오성에 기인한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영미 비평계에서 구사되는 ‘모더니즘’의 용어법을 검토하면, 사실 모더니즘은 20세기 전반기에 융성한 문예사조에 대한 객관적 명명이라기보다 ‘모더니즘’으로 통칭되는 사조를 자기 현재의 기원으로 정립하려는 수행성들의 총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런 방식의 모더니즘 이해의 시초를 이루는 논의 중 하나라 할, 아스트라두어 아이스테인슨의 1990년 저서 『모더니즘의 개념』은 그러한 수행성이 전후(戰後) 전개된 신비평을 통해 정립되었음을 구명한 바 있다.¹⁰⁾ 그는 사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20세기 전반기의 모더니즘은, 그 당대에는 한 번도 의식적으로 모더니즘으로 칭해지거나 그 이름 하에 통일적인 하나의 경향으로 규합된 적이 없음을 지적한다. 모더니즘이 ‘모더니즘’일 수 있게 된 것은 사실 신비평 이후의 비평 전통에 의한 ‘명명’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더니즘의 본질은 어떤 구체적 텍스트를 생산하는 태도나, 생산되어 있는 텍스트들로부터 추출한 공통 경향이 아니라, 특정 과거 텍스트들을 현재의 자기와 직결시키는 비평적 입장이 된다. 이것이 아이스

10) Astradur Eysteinnsson, *The Concept of Modernism*,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의 1장 참조.

테인슨이 말한 “모더니즘적 패러다임”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는, 모더니즘이란 그 용어의 문면과는 달리, 시대에 부응하려는 면보다는 시대착오적인 면이 더 본질적이라는 점이다. 모더니즘의 시대착오성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현재 내 주변을 채우고 있는 것들 중 진짜 현재에 부합하는 것은 없다. 그것들은 현재 내 곁에 있긴 하지만 유사-현대적이거나 심한 경우 사이비-현대적인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과거를 보면 거기에 나의 현재 감각에 맞으며 미래를 열어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요컨대 진짜 현재적인 것들이 존재했었다. 그 과거의 것은 시대를 앞서 현재를 선취해버렸고, 나는 그렇게 이미 오래된, 낡은 현재를 부여잡고 사는 시대착오적 존재이다.’ 그래서 20세기 전반기의 문학과 예술이 20세기 후반기 들어 새삼 ‘모더니즘’으로 명명되고 20세기 후반기 당대의 것들은 오히려 그러한 현대가 오염되고 쇠락한 형식, 즉 ‘포스트모던’한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자기 당대를 ‘현대 이후’라고 생각하는 의식은 자기 직전 과거를 현대라 여기고 자기의 현재 존재 양상을 그 현대성의 쇠퇴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¹¹⁾ 신비평적 혹은 구조주의적 비평 전통이 포스트모더니즘의 물결로 대체되는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이후의 경향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한편 포스트모더니즘의 흐름과 함께 신모더니즘론이 등장하는 것도 이해 가능해진다. 신모더니즘론은 텍스트에서 추출되는 특정한 미학적 입장에 모더니즘을 국한시키지 않고 ‘현재성’ 이념하에 과거를 총체적으로 재구조화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신모더니즘론에서 ‘모더니즘’은 그 자체로 고정될 수 없고 끊임없이 유동하는 개념으로, 현재의 비평가가 자기 고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여태까지 존재해왔던 현대적인 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게 해주는 케이בל 역할을 한다¹²⁾. 이때 ‘현대적인 것들’이란 과

11) 이런 맥락에서 프레드릭 제임슨은 포스트모더니즘론의 부상이 “지난 100년간의 모더니즘 운동이 쇠퇴 내지는 소멸했음을” 의미한다고 한 바 있다. 프레드릭 제임슨, 『포스트모더니즘, 혹은 후기자본주의 문화 논리』, 임경규 역, 문학과지성사, 2022, 35쪽.

12) Sean Latham and Gayle Rogers, *Modernism: Evolution of Idea*, London:

거 역사의 사료들 가운데 산재되어 비평가가 발견하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대상의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것들은 현대적이라 상정되는 여러 요소들이 구성하는 일종의 표면 같은 장 여기저기에 그저 놓여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현대라는 표면이 구성될 수 있도록 이중적으로 억압된 상태로 존재한다. 첫째, 그것들은 현대가 되면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이전 시대와 현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상정되지만, 동시에, 둘째, 그것은 현대가 현재 양식으로 정립되어 있기 위해서는 발견과 동시에 현대적 표면 아래로 억압되는 게 필수적이다. 그 발견은 현대성 도입의 조건이지만 현대는 그 억압을 조건으로 성립 유지된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이중적으로 억압되어 있다.

신모더니즘론은 지금까지 현대라는 표면성을 유지해왔던 게 현재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의 단순한 집괴, 집합성이 아니라 그 집합성을 가능하게 하는 이중적 억압이라는 원칙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신모더니즘론에 선 모더니즘 비평가는 모던에 대한 지향성들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모더니즘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는 현재적인 모든 것들을 현대라는 표면에 고유한 장력으로 끌어당겨 이어 붙이는 힘이, 그 표면에 존재한다고 상정되지만 사실은 억압된 것들과 표면 사이의 긴장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본다. 이 비평가는, 그러한 현대성을 구성하는 긍정적 요소라고 상정되지만 현대적 세계의 표면에는 그 흔적만 있고 사실은 철저하게 억압된 상태로만 존재하는 것들이야말로 현대성의 그 모든 요소들보다 더 근본적으로 ‘현대적’이라고 본다. 그가 주창하는 현대성은 따라서, 비평가인 자기 고유의 주체성과 본질적으로 일치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의 ‘현대성’은 지금까지 널리 인식된 현대성을 총체적으로 과거로 돌리고 현재를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는 자기만의 관점에서 기원하기 때문이다.

이는 ‘모던’의 근본적인 상대성을 재생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모더니즘에 대한 이차적 탐구가 아니라 모더니즘의 재활성화이며, 이때 모더니즘은 비평과 연구 행위로부터 독립된 대상이 아니라 비평 행위 자체에 불

은 이름이 된다. 영국의 블룸즈버리 출판사에서 나오는 신모더니즘 총서는 “모더니즘, 성, 젠더”나 “모더니즘의 인쇄문화” 식으로 “모더니즘과 (의) 무엇”이라는 제목을 한 책들로 구성되어 있다.¹³⁾ 이 중 “모더니즘, 성, 젠더”는 20세기 전반기에 생산된 미학적 모더니즘에 속하는 텍스트들의 생산에 있어 젠더, 섹슈얼리티 이슈가 얼마나 감추어진 중심적 역할을 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신모더니즘론 이전의 전통적 모더니즘론은 텍스트의 모더니즘 미학적 특성을 추출하고 세목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신모더니즘론은 그 미학성의 실현에 있어 얼마나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억압되었는지, 나아가서는 그 억압이 미학성을 생성시키는 원칙이 되는지를 논증하는 데 초점을 둔다.

“모더니즘의 인쇄문화”에서 사정은 이렇다. 전통적 모더니즘론은 모더니즘이 현대적 인쇄문화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맥락을 간과하고 모더니즘 텍스트의 내적 특질에만 초점을 맞췄다. 한편 신모더니즘론은 모더니즘 텍스트가 인쇄문화라는 우주 내에서 수행한 기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모더니즘이 현대 문화 전반의 제도적 성립과 결정적으로 연동되어 있음을 보인다. 현대는 모더니즘 예술이 대표하는 고급문화를 추구하지만 그 영토는 게토화되어 있고 하급문화는 현대사회를 총체적으로 장악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일부러 추구하지는 않는다. 인쇄문화 속에서 모더니즘은 현대성의 첨봉으로 추앙받지만 이는 현대로의 전환기에 일어난 과거 일로 국한되고 이후 현대문화 전반은 그 황금기의 예외성을 쇠락한 형식주의의 틀에 묶어 둘 뿐이다. 이상의 두 경우에서 모더니즘은 젠더·섹슈얼리티 이슈에 대한 현재적 이중적 억압이라는, 또 인쇄문화가 제유하

13) 이 총서는 10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2021년 동안 출판되었다. 그 제목을 나열하면 “모더니즘: 개념의 진화”, “글로벌 맥락에서 본 모더니즘”, “모더니즘의 인쇄문화”, “모더니즘, 과학, 테크놀로지”, “모더니즘, 전쟁, 폭력”, “모더니즘과 법”, “모더니즘, 성, 젠더”, “인종과 신모더니즘”, “모더니즘과 그 환경”, “모더니즘과 그 매체” 등이다. 총서의 총론에 해당하는 책은 Sean Latham and Gayle Rogers, *Modernism: Evolution of an Idea*, London: Bloomsbury, 2015로 이 책의 4장 「네트워크」는 위에 나열된 총서의 나머지 9권의 책들이 다루는 주제가 신모더니즘론 내에서 어떠한 맥락에 서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는 현대문화 전체를 규정하는 고급문화와 하위문화의 모순적 공존이라는, 현상 이면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게 해주는 도구 역할을 하는 것이다.

III. 모더니즘과 식민지성(coloniality)

이하 논의에서는 위에서 기술한 신모더니즘론의 관점에서 최현희의 『도둑맞은 이름들: 한국 근대문학과 식민지 모더니즘』¹⁴⁾을 ‘모더니즘의 식민지성’에 집중한 사례로 부각시키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 책의 ‘식민지 모더니즘’론이 최근 한국 문학계의 새로운 모더니즘론의 세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는 점을 드러내고, 모더니즘의 본질적 ‘식민지성’에 대한 독해가 어떻게 탈식민주의적 문학비평의 실천 사례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우선 위 책은 모더니즘이라는 도구로 한국 근대문학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식민지적인지, 그러한 본질적 식민지성에 대한 이중적 억압이 한국 근대문학의 현재 구성에 얼마나 핵심적이었는지를 서술한다. 또 한국 근대문학 전체를 식민지성과 모더니즘이 상극한 결과 나타난 생성물로 보고 모더니즘이 한국 근대문학이라는 장의 제도적 성립에 결정적인 인자로 기능하였음을 밝힌다고 할 수도 있다. 우리가 한국 근대문학을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의 제도적 총체로 취급할 때 그것은 근대한국의 문화 영역 중 하나이자 한국의 근대 학문 중 한 분과로 보인다. 그것은 한국이 문화 영역에서 확보한 현대성의 구체적 근거이며,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자는 그러한 현대성을 구체적 문학 텍스트를 통해 증명하는 자이다. 그렇다면 한국 근대문학을 구성하는 문학적 텍스트와 그에 대한 이차적 비평들은 현재 우리가 인정하는 현대성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텍스트들을 배치하는, 모더니즘적으로 구성된 현대성의 평면을 구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면의 구성은 ‘한국’의 식민지성에 대한 이중적

14) 최현희, 『도둑맞은 이름들: 한국 근대문학과 식민지 모더니즘』, 소명, 2023.

억압을 그 근본 동력으로 한다는 점을, 이 책은 지적하고 있다.

한국 근대문학은 주지하다시피 19세기 말과 20세기 전반기 동안 형성되었으며 문화이자 학문의 한 분과로 제도적으로 정립된 것은 20세기 후반이었다. 형성기 한국 근대문학이 식민지적 상황에서 전개되었다는 점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도둑맞은 이름들』은 이 단순한 사실에 대한 관찰에서 시작하여, 현재 우리가 알고있는 한국 근대문학이 그러한 사실에 대한 이중적 억압을 원리로 구성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한국 근대문학의 현대성은 그 현재적 요소들을 구제하고 일련의 체계 가운데 배치하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현대 세계 속에서 한국성이 식민지성으로 등치되면서 ‘한국’이라는 민족적 이름이 나타나고 그 이름은 비한국적 내용으로 가득 채워지는, 식민지성에 대한 이중적 억압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도둑맞은 이름들』은 한국 근대문학이라는 현대적 표면성의 장을 구성하는 심층구조가 ‘한국’이라는 텅 빈 이름과 ‘현대성’이라는 비한국적 내용의 접합이라 보고, 전자에 대한 이중적 억압을 식민지 모더니즘이라는 용어로 포착한다. 한국인은 아무리 모던하고자 해도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상 식민지인으로 그 본질이 정해진다. 좀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한국’이라는 이름은 끊임없이 현재에 충실하고자 하는 모더니즘의 도입과 더불어 식민지인의 민족적 이름으로 발명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모더니즘의 진리는 식민지성인데, 왜냐면 식민지성이 본질인 장소에서만 모더니즘은 끝없는 현재성 추구라는 그 본질을 남김없이 실현하기 때문이다. 이때 현재성 추구란 자기의 내용을 질적으로 변화시켜 가는 과정이 아니라, 다만 자기에게 임의로 붙은 이름으로 자기 주체성을 대체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모더니즘’은 그것을 언표하는 주체의 주체성을 그 기의와 일체화하는 수행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지점에서 모더니즘은 식민주의와 완전히 한몸을 이룬다는 점이 드러나고 따라서 ‘모더니즘이라는 식민주의’라는 명제가 성립한다. 식민지성이란 식민자가 부여한 민족적 이름을 제국적 자질들로 채워넣음으로써 역설적으로 자기

주체성의 이름으로의 환원을 어쩔 수 없이 감수하는 식민지인 특유의 주체성이기 때문이다. 식민지인은 피식민 민족의 이름을 달고 제국적 주체가 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함으로써, 자기의 주체성을 자기 이름으로 전적으로 환원한다. 이때 그에게 붙은 민족적 이름은 제국 체제가 임의로 붙인 것에 불과할 뿐이다. 이 지점에서 식민지성은 그 담지자인 식민지인이 자기에게 붙은 임의의 이름을 자기 주체성으로 대체한다는 점에서 정확히 모더니즘 주체의 극단적 실현태로 드러난다. 모더니즘도 식민주의도 모더니티를 현재 현실의 본질이자 미래적 발전의 지향점으로 제시한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모더니즘의 식민지성’이라는 문구로 돌아가 이를 재서술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모더니즘은 근본적으로 세계를 식민지와 식민본국(metropole)으로 분할하는 정치의 작동을 은폐하는 수행이다. 한국 근대문학은 ‘한국’의 본질적 식민지성 때문에 모더니즘의 수행을 그 자체로 드러내 보이는 현장으로서 “모더니즘이라는 식민주의”를 직시하게 해주는 현장이 된다. 즉 모더니즘을 통해 한국 근대문학을 보면, 우리가 사는 현재가 식민지성을 극복하고자 함으로써 현대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식민지성의 보편화를 통해 현대성이 유지된다는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생성되고 유지되고 있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난다. 모더니즘은 식민지성을 통해서만 그 진상을 드러내지만 그 현실적 실현은 식민지성의 억압을 통해서만 이뤄진다는 점에서, 다시금 이중적 억압은 모더니즘의 심층 구조이다.

이 책이 제안하고 있는 ‘식민지 모더니즘’이라는 개념은 연구 대상인 한국 근대문학의 심층 구조이자 그에 대한 연구가 취하는 방법론적 입장이다. 이러한 개념의 이중화는 다만 연구 대상의 본질에 충실한 방법론을 고안한다는 소박한 의도에서 나왔지만 궁극적으로 다음의 두 효과가 있다. 첫째는 당연히 한국 근대문학 나아가서 한국 자체의 근원적 식민지성을 인정함으로써 식민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며, 둘째는 ‘모든 근대는 식민지 근대’라는 식민지 근대성(colonial modernity)론을 극복하는 것이다.

위에서 지적했듯 끊임없이 ‘현재적’이고자 하는 모더니즘은 어떤 노력

에도 근원적으로 과거적인 식민지를 배경으로 할 때에만 그 무한한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모더니즘은 어떤 노력에도 지금의 시대에 귀속되지 않는, 여기-중심이 아닌 거기-주변부로서의 식민지, 디페쉬 차크라바티의 용어를 사용하면 “아직 아닌(not-yet)”이 체현된 장소로서의 식민지를,¹⁵⁾ 여기-중심이라는 식민본국과 완벽하게 구분(compartmentalization)한다.¹⁶⁾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런 맥락에서 모더니즘은 제국-유럽과 식민지-비유럽으로 양분된 세계에 구성적으로, 생성론적 차원에서 개입하는 힘이다.

식민지 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모더니즘이라는 식민주의’를 있는 그대로 포착하고자 고안된 용어이며, 그 이념에 입각한 비평은 다음과 같은 대상과 관점을 취하게 된다. 그것은 식민지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논의, 식민지에서 전개된 모더니즘을 근대 유럽에 그 모델이 있는 원본-모더니즘의 결여태나 파생물로 보거나, 그러한 미달된, 파생적 모더니즘의 버전을, 그 모든 단점에도 불구하고 굳이 긍정하여 대안-모더니즘으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논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것은 식민지를 식민주의적 세계상의 주변부에 영원히 고정시켜 놓는 적극적인 힘이 모더니즘이라는 사실을, 모던함의 추구로서의 모더니즘이 그렇게 식민지로 고정된 그 장소를 오히려 ‘아직 모던하지 않은’ 상태에 영원히 못박아 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인은 모더니즘에 주체성을 순진하게 귀속시켜 놓고, 기껏해야 ‘대안적’ 지위를 얻는데서 만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논의이다.

이런 논의를 통해 식민지인 저 장소는 어떻게 해도 식민지성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최소한 이 세계 내에서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음이 드러날 뿐이지만, 이 과정에서 모더니즘을 통한 식민주의의 교활한 작동이 그대로 드러나며, 식민주의적 세계상에 대한 극복이 그에 대한 부정이나 대안

15) Dipesh Chakrabarty, *Provincializing Europe: Postcolonial Thought and Historical Differ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p. 8.

16) Frantz Fanon, “On Violence,” *The Wretched of the Earth*, trans. Richard Philcox, New York: Grove Press, 2004, p. 5.

제시가 아닌 완전히 다른 세계상의 도래로 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는 프란츠 파농의 탈식민화 개념, 즉 “탈식민화는 결코 은근슬쩍 전개되지 않”으며 “새로운 인간의 창조”이며 이 창조는 “그 동안 식민화되었던 ‘사물’이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과정을 통해 인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할 때의 “탈식민화” 개념과 연동된 파토스이다.¹⁷⁾

IV. 모더니즘의 탈식민성

다음으로 식민지 모더니즘은 식민적 근대성론의 극복을 기도한다. 이 담론은 현대성의 결정적 구성 원리가 ‘식민성’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여 그 중심과 주변을 가리지 않고 현대 세계란 본질적으로 식민적이라는 점임을 밝힌다. 예컨대 제국의 수도에서 카페 문화가 꽃피우고 그것을 배경으로 예술가들로 구성된 일종의 코뮌적 공동체가 생성되려면, 우선 커피가 커피벨트 어딘가에 있는 식민지 플랜테이션에서 생산되어 세계 시장에 저렴하게 유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구조는 물어지거나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으며 식민지성을 은폐하면서 현대성이 구성될 뿐이다. 한편 식민주의는 식민지인을 커피 생산에 동원하여 착취하면서 그들을 전근대의 비합리적 구습에서 현대적 합리성의 세계로 이끌어내고 그 과정에서 식민지성은 근대성과 연동되고 착종된 상태로 식민지인에게 작동한다.

이를 식민지 한국에 적용하면, 한국은 일본제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민족적 차별과 착취의 대상이 되지만 그 과정은 근대적 합리성의 제도화를 통해서만 이뤄지며 이런 점에서 식민지 한국인은 식민지인인 현대인으로 재탄생한다. 현대적 세계가 식민본국과 식민지의 상호규정으로 생성되고 유지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식민지 근대성론은, 식민지 한국인이 마치 자기의 ‘한국성’을 내어주고 근대성을 얻었다는 식의, 공정한 거래의 한 당

17) Ibid., p. 2.

사자 주체라는 논리를 생성해낸다. 애초에 한국인은 그 거래에 강제로 끌려 들어왔을 뿐이라는 점은 간과되고, 그 거래에서 교환된 한국성과 근대성이 애초에 교환될 수 있는 비슷한 것인지도 묻어지지 않는다.

식민지 모더니즘은 식민지 근대성론과 마찬가지로 식민성과 근대성의 필연적 연관성에 주목하지만 식민지 근대성론의 정태적 인식론이 정치적 허무주의나 현실 추수주의와 연동된다는 점에 비판적으로 착목한다. 식민지 근대성론은, 식민지는 자기 민족성을 대가로 치르고 근대성을 획득한다는 도식을 전제한다. 이때 민족성은 모던하지 않은 것, 과거로 돌려지고 식민지인은 그렇게 꺾데기만 남게 되어버린 자기의 이름에 모던한 것들을 채워 넣음으로써 현대 세계에 비로소 기입된다. 여기서 식민지 근대성론은 식민지를 그 이름으로 환원하고, 그러한 순전히 과거적인 이름에 현대성을 채워 넣음으로써 식민지를 언제나 이미 시대착오적인 장소로 생성시키고 있다.

이는 식민지성과 현대성의 지속적인 길항 관계로 식민지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역동적 담론처럼 보이지만, 식민지성이란 언제나 이미 식민지 근대성론을 주창하는 비평가의 입장에서 볼 때 과거적인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실 식민본국의 무조건적 현대성과 식민지의 무조건적 과거성이라는 틀을 전제하고 있고, 따라서 제국 체제의 존속을 전제하는 정태적 인식론을 깔고 있다. 그 결과 한번 식민지인 장소는 언제나 그 고유의 장소성=과거성으로 본질이 정해져 버리고 한번 제국을 운영했던 식민본국은 언제나 현대적 보편성의 마르지 않는 샘으로 그 본질이 정해진다. 그 결과 식민지는 어떻게 해도 식민주의적 혹은 제국적 세계상에서 주변적 식민지의 위치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 식민지적 현실의 복잡성에 대한 역동적 인식이 역설적으로 세계를 식민주의적으로 고정시키고 이를 영속화시키는 허무주의·현실추수주의로 귀결되고 마는 것이다.¹⁸⁾

18) 문학을 비롯한 한국의 문화적 생산물들에서, 한국이 식민지였던 시기나, 공식적으로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난 냉전 시기나, '식민적 근대성'이, 과거-현재, 한국-세계 사이의 끊임없는 교섭의 양식으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식의 논의에 대한 비판은 다음의 두 글을 참조. 최현희, 「미국 한국문학 연구의 현 단계와 한국현대문학 연구」, 『반교어문연

식민지 모더니즘은 식민성과 식민지성을 구분함으로써 식민지 근대성론의 이와 같은 자기모순을 극복하려 한다. 콜로니얼 모더니티라고 하면 모더니티의 콜로니얼한 면을 정태적으로 인식하는 데서 그치지만 콜로니얼 모더니즘이라고 하면 그렇게 정태적으로 인식된 세계상을 생성시키고 유지시키는 힘을 인식하는 데 이를 수 있다. 영어로는 콜로니얼리티라고 할 수밖에 없는 식민성과 식민지성을 구분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식민성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식민본국과 식민지 양측 모두에서 발견되는 공통성, 즉 세계를 식민주의적으로 분할하는 정치의 작동에 따라 보편화된 모더니티에 대한 인식이 들어있다. 이때 식민본국과 식민지는 상호규정성 가운데 모더니티를 성립시키는 동등한 두 당사자처럼 보인다. 한편 식민지성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식민지에서만 나타나는 모더니티의 난국이 필연적으로 상기된다. 식민지에서 모더니티는 식민지인을, 그 장소를 가리키는 민족적 이름으로 환원하고 그 주체성의 내용을, 그러한 환원을 폭력적으로 강제한 제국이 보증하는 보편성의 자질들로 채우는 끊임없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끊임없는’ 것은, 식민지는 제아무리 그 이름에 맞지 않는 제국의 내용으로 자기를 채우더라도 끝내 식민지의 민족적 이름으로 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제국적 보편성에는 끝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민지에서만 식민주의는 그 진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며 식민주의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의 모든 자기의 과거상을 부정하고 갱신하여 현재에 맞는 새로움을 자기화한다고 하는 모더니즘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식민주의란 위에서 설명했듯, 세계를 식민본국과 식민지로 분할하고 두 장소에 붙은 민족적 이름에 중심성과 주변부성을 배당하는 조작술이다. 여기에 모더니즘은, 중심부의 시간은 그것을 추구하는 주체의 현재이며 주변부는 나의 것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중심의 중심성과 주변부의 주변성은 영원할 수밖에 없음을 현대적 주체성의 근본 조건으로

구] 45, 반교어문학회, 2017; 최현희, 「문화사로서의 한국학의 조건과 사명」, 『사이間 SAI』 17, 국제한국문화문화학회, 2014.

부여하면서 식민주의와 한 몸이 되어 작동한다.

여기서 식민지인이 주변적인 것은 그가 어떤 현대성의 자질들을 체현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식민지의 민족적 이름을 달고서 현대 세계에 실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식민지인은 자기의 지금까지의 주체성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아무리 철저하게 부정한다 해도 식민지 출신이라는 사실 단 하나 때문에 현대적일 수 없다. 이 지점에서 식민지인의 현대 세계에서의 민족적 정체성이란 다만 그가 태어난 장소에 붙은 ‘이름’에 전적으로 의탁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식민지인은 현대 세계에서 자기 이름을 채우는 내용을 자기 것으로 채울 수 없고 오직 제국적인 것으로 채울 것을 폭력적으로 강요받지만 그 과정이 아무리 완전해져도 절대 식민본국의 이름을 가질 수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식민지인의 민족적 이름은 식민자에게 ‘도둑맞은 이름’이다.

그러나 자기 이름을 도둑맞았다는 사실은 식민지인이 현대 세계에서 제국적인 것들 가운데 하나로 절대로 환원될 수 없는 식민지인으로서의 ‘별거벗은 생명’으로 실존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상기시킨다. 식민지인은 자기 이름을 채우는 자기만의 내용물이 전혀 없지만 여전히 그 이름으로 불린다. 식민지인에게는 자기 아닌 것들로 채워진 내용밖에는 없지만 여전히 그는 식민지인이며 이런 점에서 그에게 붙어 있는 민족적 이름은, 어떤 보편성의 자질로도 환원되지 않고 의미화되지 않는, 그의 별거벗은 생명으로서의 실존이 현대 세계 전체를 생성시키는 최종 심급임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식민지 모더니즘은, 식민지에서만 식민성이 그 진실을 드러내며 식민지성의 실현이야말로 가장 래디컬한 모더니즘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포착한다. 식민지인은 언제나 지금까지의 자기의 전부를 부정하고 현대성을 실현하기 위해 늘 자기 아닌 것, 완전한 새로움의 가치를 추구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추구를 멈추는 순간 그는 도둑맞은 이름이나마 상실하고 완전히 별거벗은 생명으로 전락할 운명이기 때문이다. 식민지인의 도둑맞은 이름과 별거벗은 생명이라는, 접합될 수 없는

것들의 폭력적 강제적 접합을 심층구조로 하는 주체성은 이런 의미에서 그대로 모더니즘의 가장 래디컬한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V. 식민지 모더니즘의 양극(兩極)과 초극(超克)

『도둑맞은 이름들』은 서론을 제외하면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인물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장 최남선, 2장 이상, 3장 이상과 최재서, 4장 최재서, 5장 최재서와 교토(京都)학파, 6장 미키 기요시(三木清)와 최명익, 7장 임화, 8장 강경애, 9장 문예봉이다. 단순한 나열에서도 드러나듯 사실상 이 책의 주인공은 이상(李箱, 1910-37)과 최재서(1908-64)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둘은 1936년 작가와 비평가로 지상에서 마주친 바 있다. 이상은 1936년 9월 종합잡지 『조광』에 단편소설 「날개」를 발표하고 바로 식민지 수도 경성을 떠나 제국의 수도 도쿄로 나아간다. 「날개」에 관한 최재서의 평문, 「「천변풍경」과 「날개」에 관하여: 리얼리즘의 확대와 심화」는 동월 『조선일보』에 발표된다. 이 평론에 대해 작자 이상은 1936년 11월 29일 선배 시인 김기림에게 보낸 편지에서 반응을 보인다.

(1) 우리는 「날개」에서 우리 문단에 드물게 보는 리얼리즘의 심화를 가졌다. 현대의 분열과 모순에 이만큼 고민한 개성도 없거니와 그 고민을 부질없이 영탄치 않고 이만큼 실재화한 예를 보지 못한다. (중략) 그러나 우리는 이 작품을 읽고 나서 무엇인가 한 가지 부족 되는 느낌을 감할 수 없다. 높은 예술적 기품이라 할까 하여튼 중대한 일요소를 갖추지 못하였다.

그것은 이 작품에 모랄이 없다는 것으로써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작자는 이 사회에 대하여 어느 일정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 작품의 모든 삽화에 나타나는 포즈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편적 포즈에 불과하고 시종일관한 인생관은 아니다. 상식을 모욕하고 현실을 모

독하는 것이 작자의 습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이 작자의 윤리 관이고 지도 원리이고 비평 표준이 되느냐 하면 나는 선뜻 대답키를 주저한다. 작자는 이 세상을 욕하고 파괴할 줄은 안다. 그러나 그 피안에 그의 독자(獨自)한 세계는 아직 발견할 수 없다.¹⁹⁾

(2) 『조선일보』 모씨 논문 나도 그 후에 얻어 읽었소. 형안이 죽히 남의 흥리를 투시하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씨의 모렬에 대한 탁견에는 (중략) 약간 수미(愁眉)를 금할 수 없는가도 싶습니다. 예술적 기품 운운은 씨의 실언이오. 톨스토이나 국지관(菊池寬) 씨는 말하자면 영원한 대중문예 (문학이 아니라)에 지나지 않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신 듯합니다.²⁰⁾

(1)이 최재서의 「날개」 평문이며, (2)가 그에 대한 이상의 반응이다. (1)에서 주목할 지점은, 최재서가 이상 문학의 에토스로 현실에 대한 전적인 부정을 들고 그 부정에 따르는 대안 제시를 주문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재서가 볼 때 이상 문학은 리얼리즘의 심화에 해당하는데 그것은 현실을 그 표면성에 기초하여 재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심층구조까지 보여주는 데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상의 현실 부정은, 현실로부터 자기의 철저한 소외로 형상화되며 어쭙잖은 화해나 초극을 지향하지 않고 철저히 “현실을 모독”하는 차원에서 그친다. 「날개」는 현실의 논리로 끝내 환원되지 않는 ‘자기’의 부정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현재 현실이 인식 가능 세계의 전부가 아니며 그 표면 아래 어떤 심층구조가 존재함을 역설적으로 암시한다. 그런 점에서 「날개」는 현실에 대한 리얼리즘적 재현의 ‘심화’에 해당하는 사례가 된다.

논의의 이 지점에서 최재서는 어떤 비약을 꾀한다. 즉 그는 작자 이상에게, 심층구조의 암시는 이제 그만 두고 현재 현실을 대체하는 어떤 미래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다. “피안”의, 작가만의 “독자한 세계” 즉

19) 최재서, 「천변풍경」과 「날개」에 관하여, 『문학과 지성』, 인문사, 1938, 111-112쪽. 원문의 뜻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대 표기법으로 바꾸어 인용하였다.

20) 이상, 『이상 전집 4: 수필』, 권영민 편, 태학사, 2013, 172쪽.

“모럴”이 바로 그러한 대안을 가리키는 최재서의 용어이다. 최재서가 이상 작품을 모더니즘의 사례로 들지 않고 “리얼리즘의 심화” 사례로 드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이다. 이 지점에서 최재서의 「날개」 비평은 당대 한국의 식민지적 현실을 초극하는 어떤 이상적인 대안현실을 그 지평으로 삼는다. 최재서는 ‘현재’에 내재한 “분열과 모순”으로 (이때 ‘현재’는 「날개」의 주인공이자 서술자 ‘나’의 내적 분열이다) 현대성을 포착하는 것이야말로 리얼리즘적 현실 재현이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그는 모더니즘적 비평 태도를 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 “분열과 모순”의 있는 그대로의 드러냄에서 그치지 않고, 즉 해체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완전히 극복하는 어떤 구축을 지향한다. 그런 점에서 그는 모더니즘을 통해 열린 미학의 정치화 가능성을 정치의 미학화로 오해해 버리고 전체주의적 대통합의 장으로 함몰되어 들어갈 길을 열어젖힌다.

모더니즘을 통해 미학의 정치화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은 이상의 (2)의 반응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상은 현재를 부정하고 모독하며 낱낱이 데서 멈추지 않고 무언가 “예술적 기쁨”을 찾아 가다보면 결국 다시 현재적 현실로 환원되어 “대중문예”나 “영원”히 쓰게 되고 말 것이라고 한다. 현대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는 현재적 현실과 자기의 분열, 자기의 세계로부터의 소외를 스스로 비웃는 자조에서 그치고 그 태도를 그대로 글쓰기로 옮길 때에만 “문학”이 성립한다. 이때 “문학”은 현실과 어떠한 타협지점도 찾을 수 없는, 현실의 부정으로서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현실의 작동원리로서의 정치와는 구분되는 미학의 생성지이자 거점이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학은 정치에 총체적으로 맞섰다는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정치화된다. 그러나 최재서의 이상(理想)적 대안 추구의 장으로서의 문학은 그 미학성을 현실과의 타협 과정 속에서 순차시키고 해소시키는 과정이며, 그 과정으로 정치를 완전히 대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정치의 미학화이다.

최재서의 「날개」 비평은 따라서 미학의 정치화라는 모더니즘의 혁명성을 정치의 미학화로 전치시키는, 아무 근거 없는 비약이 일어나는 현상이

다. 이 비약은 최재서의 1937년부터 1945년까지의 ‘친일적’ 비평적 행로를 통해 모더니즘의 식민지성을 남김없이 드러내 보이는 과정으로 지루하게 전개된다. 최재서는 1937년 이후 일본제국이 전쟁동원을 위하여 식민지 한국에 전체주의 체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극렬한 협력자로 자기를 재정립한다. 그의 협력은 식민지 동화(同化) 정책에 대한 협력이 그 요체이다. 이는 간단히 말해 식민지 한국인의 ‘한국적’ 자질을 모두 말소하고 그것을 ‘일본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정책이다. 최재서에게 당시 근대 세계는 서양이 비서양을 식민화한 세계였다. 근대성은 곧 서양의 동양에 대한 식민지배에서 파생한 것이었다.

최재서는 서양과 엄연히 다른 동양의 현재를 인정하지 않고 서양이 자기를 동양에 강요하는 식민주의는 부자연스러우며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 ‘동양의 현재’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문제가 생긴다고 보았다. 모든 문제는 동양과 서양이 동등해질 때 해결된다. 따라서 동양의 한 부분인 한국은 그 민족적 독립을 추구하는 비본질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동양을 대표하는 일본과 “일체(一體)”가 되어 동양의 동양화에 나서야 하는 게 너무나도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최재서는 동양이 서양과는 다르다는 현재적 현실에 충실하고자 했고, 이때 현실은 서양에 의해 왜곡되어 강요된 근대적 현실을 극복하고 새롭게 성립될 이상적이고 미래적인 현대적 현실이었다.

문학도 이 현대적 현실이 현재에 도래하도록 하는 데서만 그 의미가 생긴다. 요컨대 최재서의 일체 말기 비평은, 식민지 한국인이 현재에 충실하기 위해서 자기의 내용뿐 아니라, 식민자에게 도둑맞아 이미 자기 것이 아닌 자기의 이름까지도 완전히 식민자의 그것으로 대체하고자 한 행위였다. 최재서는 그 비평의 막바지에 이르러 자기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면 자기는 손색없는 일본인이 되어 미래를 현재로 앞당겨 실현하는 주체가 된다고 믿을 정도로, 즉 말을 다르게 하는 미학적 행위로 정치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믿을 정도로, 모더니즘에 철저했다. 최재서 비평은 ‘모더니즘이라는 식민주의’를 극한까지 밀고 나간 사례라고 할 만한데,

왜냐면 그는 식민지의 현재에 충실하기 위해 자기를 모조리 식민본국의 제국적 주체성으로 가득 채우고자 했던 것이다.

문제는 그가 자기의 내용물은 제국적으로 완전히 변환하려 한 데서 그치지 않고 식민지인의 이름, ‘한국’마저도 제국의 그것으로 바꾸려 한 데 있다. 식민지인은 속속들이 제국적일 수 있어도 여전히 식민지인으로 불리는 게, 이 식민지 근대성으로 가득 채워진 현대 세계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다. 최재서는 모더니즘의 진리로서의 식민지성을 순진하게 끝까지 밀어붙인 결과 진정한 탈식민성의 가능성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것은 정치의 미학화와 미학의 정치화가 반대의 방향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더니즘적으로 현재 세계를 인식하고 구성하고 그 안에서 행위하는 순간 동시에 양쪽으로 열리는 하나의 방향성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모더니즘의 탈식민성을 상기시켜주는 반면교사로서 최재서의 모더니즘을 마주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모더니즘의 탈식민성’을 상기시켜주는 긍정적 사례로 임화(1908-53)의 신문학사(新文學史)를 언급하는 것이 적절할 듯싶다. 임화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치는 식민지 한국의 문학을 ‘신문학’으로 칭하며 그 역사를 기술하는 작업을 1930년대 후반에 전개했다. 위에서 언급한 이상과 최재서의 마주침, 최재서의 모더니즘의 식민지성의 극한 전개와 동시에 일어난 일이다. 임화의 문학사의 요체는 ‘이식문학론’인데, 한국 근대문학이 근대성을 띠는 것은 그것이 서양문학의 전적인 ‘이식(移植)’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임화가 ‘한국 근대문학’을 절대로 그렇게 부르지 않고 오직 ‘신문학’이라고만 부른다는 점과, 미래 어느 때 한국문학 전사(全史)가 쓰일 수 있는 시점이 되면 그때야 ‘신문학’은 ‘한국 근대문학’이라고 불릴 수 있으리라고 본다는 점이다.²¹⁾ 임화는 ‘한국 근대문학’이라고 부르면 될 것을 굳이 ‘신문학’이라고 부르며 왜 자기가 그 용어법을 쓸 수밖에 없는

21) 임화, 「개설 신문학사」, 『임화문학예술전집 2: 문학사』,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소명, 2009, 16-17쪽.

지를 길게 설명한다. 한국 근대문학은, 한국 입장에서 보면 전적으로 새로운 것, 자기 고유의 전통에는 전혀 아무런 연결점이 없는 것, 제국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서양 문학의 ‘이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국’ 근대문학으로 지칭될 수 없으며, 현재 그것을 기술하는 사람인 임화 자신이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무언가 새로운 문학, ‘신문학’으로 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문학사를 기술하는 이 식민지의 문학사가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의 역사 서술을 통해 자기 것으로 역지로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자기의 현재가 총체적으로 자기 것이 아니라는 현실 인식 이후 자연스러운 수순은 그것을 일소하거나 극복하여 자기 것으로 채우는 미래를 구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임화는 이 수순을 밟아 나가지 않는다. 그는 신문학마저 완전히 자기화하여 한국 문학사 전체가 쓰일 수 있는, 근대 이후의 시대로서의 현대를 구상하고 있다. 즉 임화는 이식된 서양문학이 한국성의 일요소가 되면, ‘신문학 시대’는 한국 문학사에서 현대의 직전 시대로서의 근대로 비로소 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임화에게 아직 현대는 오지 않은 시대이다. ‘근대’가 철저히 ‘비한국적’이므로 그 연장선상에서 도래할 현대는 한국적이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임화는 현대가 되면 비한국적인 한국의 근대가 비로소 한국 역사 전체의 정당한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본다.

여기서 임화는 비한국인 현재를 자기의 문학사적 글쓰기 가운데서 끝내 한국적인 것으로 재탄생시켜 생성시키는 수행을 하고 있다. 이는 현재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된 식민지인이 글쓰기에 자기성을 완전히 의탁함으로써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미래적 현재를 향하여 자기를 완전히 개방시키는 수행이라 할 만하다. 그런 점에서 임화의 신문학사는 모더니즘의 탈식민성의 추구, 즉 모더니즘의 탈식민적 정치를 위한 사용은, 미학의 정치화라는 모더니즘이 열어 주는 방향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택할 때 열린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또 그 선택은 현재의 편만한 식민지성을 가감 없이 인정하고, 식민지성 극복이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도래하는 미

래에 맡겨져 있다는 점을 또 인정하는 행위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

VI. 맺음말

이 글은 최근 한국 현대문학계에 나타난 모더니즘론의 새로운 경향을 크게 셋으로 정리하고 그 중 모더니즘을 식민지성에 대한 탈식민주의 비판의 관점에서 다시 읽는 경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위의 논의에서 드러나듯 모더니즘론의 새로운 분기는 모더니즘의 ‘역사화’로 정리될 수 있는 현상이며, 이 글에서 탈식민주의적 모더니즘론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것은 이 경향이 역사화를 첨예화하여 보여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모더니즘을 비롯한 문학비평에서의 사조 개념이나 문학 혹은 문화적 생산물의 사회정치적 위상을 이해하는, 공시적으로 일반화된 개념에 대한 역사화란, 그러한 개념들의 통시적 정립과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의미한다. 그러한 비판은 궁극적으로, 그러한 개념이 현재의 사회정치적 메커니즘의 긍정적인(affirmative) 구성 요소기이기를 멈추게 하고, 그 개념의 정립 과정이 은폐하고 있는 정치적 힘을 재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모더니즘의 식민지성을 폭로하는 동시에 모더니즘을 통한 탈식민적 정치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모더니즘론의 탈식민적 재독의 사례로서의 식민지 모더니즘론의 의의가 이해될 수 있다. 식민지 모더니즘론은 최근 모더니즘론의 역사화 경향들 중에서도 ‘역사화의 정치성’에 집중하는 사례라고 할 만한 것이다.

식민지 모더니즘론을 통한 한국 현대문학에 대한 다시 읽기가 어떠한 새로운 읽기를 산출할 수 있는지는 이 글의 마지막 절을 통해서 간단히 언급되었다. 한국의 식민지기에, 문학을 통한 식민지성의 극복과 모더니티의 실현을 추구한 사례로서 이상, 최재서, 임화의 소설, 비평, 문학사 텍스트를 일관된 시각에서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 암시된 것이

다. 이상과 최재서는 식민지 모더니즘의 양극단에 서있는 사례로, 임화는 양극을 내포한 부정적이며 내재적인 초월의 사례로 제시되었다고 할 만하다. 이 성과 가운데 한국 식민지 문학의 다른 사례들은 어떻게 배치될 수 있을지, 또 한국 아닌 다른 식민지, 나아가서는 식민지가 아닌 식민본국의 사례들은 어떻게 배치될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 일은 이 글 이후에 나타날 연구의 과제가 되어야 할 듯하다. 또 모더니즘론의 역사화 경향 전반이 한국 현대문학 연구에 나타나고 있는, 모더니즘 개념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 경향들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했을 때 모더니즘론의 2010년대 중반 이후의 새로운 분기가 학술사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도 뚜렷해지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권은,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세계문학적 의의: 영어권 한국문학 연구자들의 주요 연구서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18, 구보학회, 2018, 9-32쪽.
- _____, 「한국 모더니즘 문학과 채만식 소설」, 『어문연구』 47권 4호, 한국어문교육 연구회, 2019, 275-298쪽.
- 김미지, 「한국과 중국 모더니즘 문학의 통언어적 실천에 관한 일 고찰: 이상, 박태원, 무스잉의 문학 언어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43, 한국현대문학학회, 2014, 257-294쪽.
- _____, 「모더니즘, 신감각파(新感覺派), 현대주의: 동아시아의 ‘modernism’ 문학 개념에 대한 일 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47, 한국현대문학학회, 2015, 255-285쪽.
- _____, 「한중일의 ‘제임스 조이스’ 담론과 매체 네트워크」, 『구보학보』 28, 구보학회, 2021, 95-122쪽.
- _____, 「1930년대 초 미국 좌익문학 수용과 매체 네트워크: 동아시아의 엠평 싱클레어 열과 잡지 『뉴 매시즈』의 상륙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65, 상허학회, 2022, 11-48쪽.
- 김예리, 「아카데미즘과 모더니즘: 국문학으로서의 현대문학과 모더니즘 문학/이론」, 『구보학보』 28, 구보학회, 2021, 11-51쪽.
- _____, 「트랜스모더니즘으로서의 백석 문학」, 『어문연구』 50권 4호, 2022, 283-317쪽.
- _____, 「식민지 모더니즘을 역사화하라!」, 『상허학보』 69, 상허학회, 2023, 647-678쪽.
- 김진희, 「1930년대 모더니즘 네트워크와 거점으로서의 동인지: 모더니즘 동인지 『시와 소설』, 『삼사문학』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28, 구보학회, 2021, 53-94쪽.
- _____, 「1930년대 후반 모더니즘의 확장과 남북한 시문학사의 재고: 동인지 『단충』(1937)과 『맥』(1938)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76, 한국문학연구학회, 2022, 51-100쪽.
- 박상준,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과 이상, 최재서』, 소명, 2018.
- 이상, 『이상 전집 4: 수필』, 권영민 편, 태학사, 2013.
- 임화, 『임화문학예술전집 2: 문학사』,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편, 소명,

2009.

최재서, 『문학과 지성』, 인문사, 1938.

최현희, 「문화사로서의 한국학의 조건과 사명: 휴즈의 『냉전시대 한국의 문학과 영화』를 통해 본 미국 한국학의 단계들」, 『사이間SAI』 17,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4, 439-468쪽.

_____, 「미국 한국문학 연구의 현단계와 한국현대문학 연구」, 『반교어문연구』 45, 반교어문학회, 2017, 241-263쪽.

_____, 『도둑맞은 이름들: 한국 근대문학과 식민지 모더니즘』, 소명, 2023.

한솔지, 「모더니즘과 세계: ‘글로벌 모더니즘’의 국외 연구동향」, 『안과밖: 영미문학연구』 51, 영미문학연구회, 2021, 172~190쪽.

Chakrabarty, Dipesh, *Provincializing Europe: Postcolonial Thought and Historical Differ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Eysteinsson, Astradur, *The Concept of Modernism*,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Fanon, Frantz, *The Wretched of the Earth*, trans. Richard Philcox, New York: Grove Press, 2004.

Jameson, Fredric, 『포스트모더니즘, 혹은 후기자본주의 문화 논리』, 임경규 역, 문학과지성사, 2022.

Latham, Sean and Gayle Rogers, *Modernism: Evolution of an Idea*, London: Bloomsbury, 2015.

Morrison, Mark S., *The Public Face of Modernism: Little Magazines, Audiences, and Reception 1905-1920*,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2001.

Abstract

**Post-Coloniality and Coloniality in Modernism:
Historicizing Modernism and Colonial Modernism in
Recent Studies on Modern Korean Literature**

Choe, Hyon-hui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ssociate Professor)

Since around 2015, there has been a remarkable shift in modern Korean literary studies toward reinterpreting modernism. Traditionally viewed as opposing the ideologically engaged and realistic tendencies in literature, modernism is being reevaluated through three new lenses. Firstly, the realism versus modernism dichotomy is increasingly seen as a construct emerging from the narrative act of literary historiography, rather than an objective historical fact. Secondly, this period challenges the perceived autonomy of modernist literature from reality by highlighting its direct links to the socio-political and material conditions of its time. Thirdly, within the Korean context, attention is drawn to modernism's affinity with globality, universality, and Western centrism, advocating for a post-colonial interpretation of modernism's colonial aspects.

Building on this framework, this article delves deeper into the post-colonial critique of modernism's colonial dimensions, starting with an examination of the New Modernist Studies as a theoretical backdrop. It further investigates the notion of colonial modernism through Choe Hyonhui's recent work, aiming to highlight the decolonial potential within modernism. By proposing interpretative methods for the colonial modernist readings of Yi Sang, Ch'oe Chaesŏ, and Im Hwa, this article explores new possibilities for the historicization of modernism in modern Korean literary studies.

Keywords: modernism, historicization, coloniality, post-colonialism, colonial modernism.

논문 투고일: 2024년 03월 15일

심사 완료일: 2024년 04월 10일

게재 확정일: 2024년 04월 17일